신예 배우 이채민의 반전매력…“수식어 공백으로 둘래요”

tvN ‘일타스캔들’로 주목, “학창시절 떠올리며 몰입했죠”
모의고사 1등급 받던 모범생, 고3 때 뒤늦게 ‘연기 도전’

신예 이채민(23)은 tvN 종방극 ‘일타스캔들’ 속 ‘이선재’와 닮은 점이 많다. 겉모습만 보면 왠지 놀기 좋아할 것 같지만,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 영역 1등급을 받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고3 때 연기자로 방향을 틀기 전까지 초등학생 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다.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연기했다며 “자연스럽게 몰입됐다”고 털어놨다.

“남들과 똑같이 입시를 준비했고, 나 역시 학원 수업에 치여서 공부하곤 했다.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1등급을 받았다. 촬영할 때 교복도 교복이지만, 내 눈앞에 문제집이 놓여있으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났다. 중간 중간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다. 학생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학교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아~나도 이렇게 학교생활했었지’라며 추억에 젖곤 했다. 고3 때 뒤늦게 ‘연기 도전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흔쾌히 승낙해줬다. 공부도 연기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드라마는 입시지옥에 뒤늦게 입문한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전도연)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서 별이 된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의 로맨틱 코미디다. 1회 4.0%(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17%로 막을 내렸다. 전도연(50)과 정경호(40)가 중심을 잡아줬고,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로맨스도 설렘을 줬다. 이채민은 변호사 ‘장서진’(장영남) 둘째아들 ‘이선재’로 분해 ‘서건후’(이민재)와 행선 조카 ‘남해이’(노윤서)를 두고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이채민은 “사실 테스트 촬영 때만 해도 윤서와 서먹서먹했다. 촬영 끝나고 PD님이 ‘어색한 게 티 난다’며 ‘둘이 밥 좀 먹고 오라’고 했다”면서 “동갑이다 보니 금방 친해졌다. 연기하며 설렜던 적 있냐고? 전혀 없다”며 웃었다. 버스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해이와 선재 관계를 한 눈에 보여줬다. PD님이 음소거 처리하니 ‘수다를 떨라’고 하더라. ‘밥 뭐 먹을까?’ ‘롯데월드 놀이기구 잘 타니?’ 등 일상 얘기를 나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윤서가 채워줬고, 덕분에 나도 집중력있게 몰입했다”고 돌아봤다.

후반부 엄마 선재가 시험지를 유출했을 때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보다 ‘선재로서 어떻게 할까?’를 많이 생각했다. 나였어도 많은 고민 끝에 자퇴를 했을 것 같다. 결국 선재는 시험지를 냈지만, 해이는 백지로 냈다. 나의 과오이고, 학부모 시위도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선재는 검정고시에 합격, 해이와 함께 의대에 진학했다. 마지막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됐는데 “결말은 아쉽지만 만족했다. 그 뒤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선재가 해이를 얻었지만, 삼각관계가 형성 돼 계속 불안했다. 건후만끼를 부리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느냐. 나도 말할 수 있는데 참아야 했다. 선재로서 해이를 대해야 해 답답하고 어렵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전도연, 정경호, 장영남(50) 등과 연기하며 배운 점도 많다. TV 화면으로만 보던 선배들과 한 작품에 출연, 팬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한 번쯤 ‘내가 최치열을 연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을까. “경호 선배가 최치열을 정말 잘 소화했다”며 “큰 부담이 있겠지만, 내 스타일대로 할 것 같다. 나도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내 나름대로 캐릭터를 풀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선배들 연기를 보면서 ‘와~진짜 잘한다’라고 감탄만 했다. 장영남 선배와 신이 많아서 유독 긴장했다. 그 동안 선배가 센 캐릭터를 많이 맡아서 긴장했는데, 따뜻하게 응원해줬다”며 “실제 우리 가족은 선재 가족과 반대다. 엄마, 아빠, 동생과 사이가 좋고 화목하다. 처음에 선재 가족에게 낯이 가려졌고,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섭기더라. 긴장감이 서리는 집안이라서 현관문 들어갈 때도 낯설었다. 항상 가족들과 함께 일타스캔들을 과몰입해서 재미있게 봤다”고 덧붙였다.

이채민은 일타스캔들이 세 번째 작품이다. 2021년 ‘하이클래스’로 데뷔했고, ‘너에게 가는 속도 493㎞’(2022)에도 출연했다. 매 작품마다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 흥행면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짚었다. 일타스캔들과 올해 방송예정인 tvN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촬영, KBS 2TV ‘뮤직뱅크’ MC까지 병행해 힘들었을 터다. “그저 버텼다”며 “카메라 앞에서 만큼은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말 뮤직뱅크 MC로 발탁, 6개월 째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룹 ‘아이즈’ 장원영(19)에 이어 ‘르세라핌’ 홍은채(17)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원영씨는 선배 냄새가 풍겼고 잘 이끌어줬다. 진행도 잘 해서 보고 배운 게 많다. 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긴장을 많이 풀어줬다”며 “은채씨는 정말 어려서 놀랐다. 점점 호흡을 맞춰나가고 있으니 케미를 기대해달라”고 청했다.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떨렸다. 왜 ‘은행장’이라고 부르는지도 몰랐다.(웃음) 어느 날 갑자기 미팅 제의가 왔다. 대본에 낯간지러운 말이 많았지만 꾹 참고 했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나왔다. 생방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든지 부딪치면서 노력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여유가 생겼다. 애드리브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하려고 한다. 이제 거의 안 떨린다. 실수해 당황할 때도 있는데, 나름 귀엽게 봐주더라.”

이채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다. 배우 김수현(35)이 세운 골드메달리스트에 소속 돼 있다. “사실 수현 선배는 워낙 바빠서 많이 뵙지는 못했다”면서도 “지난번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다같이 모였을 때 조언을 해줬다. 커피차 보내줬냐고? ‘약한영웅’에는 회사 소속 배우 두 명(최현욱·김수겸)이 나와서 커피차를 보내줬지만, 나한테도 보내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서 서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수현 선배뿐 아니라 이병헌, 김우빈, 손석구 선배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사람으로서도 매력이 있고, 연기적으로도 본받을 점이 많다. 배우가 되기 전부터 좋아한 선배들”이라고 했다.

“난 반전매력이 있다. 남이 알아주고,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게 매력 아니냐. 난 안 웃으면 다가가기 어렵고 차가워 보이는데, 실제로 유쾌하고 웃음도 많다. 첫 인상과 달라서 반전 있다고 좋아해주더라.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도 안 붙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공백으로 놔두고 싶다. 로코물을 가장 좋아하고 즐겨본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매 작품마다 그 캐릭터로 보였으면 좋겠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뉴진스, 美 ‘롤라팔루자’ 출연

K팝 4세대 간판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국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 헤드라이너가 됐다. 4세대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는 데뷔 1년 만에 이 축제 라인업에 포함됐다. 두 팀은 각각 빅히트뮤직과 어도어 소속으로 하이브 레이블즈에 묶인다.

투바투, K팝 그룹 첫 헤드라이너
뉴진스, 데뷔 1년 만에 라인업

21일 빅히트 뮤직과 롤라팔루자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는 8월 3~6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 2023’에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해 ‘롤라팔루자’ 무대를 통해 북미 페스티벌에 데뷔했는데 1년 만에 헤드라이너가 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최근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 템테이션’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30년 역사를 지닌 ‘롤라팔루자’엔 그간 영국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미국 거물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Metallica)’,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 등이 출연했다.

특히 작년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소속사 직속 선배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헤드라이너 나서 주목 받았다. 제이홉은 북미 주요 음악 축제에 헤드라이너로 나선 첫 한국 아티스트였다.

‘롤라팔루자’ K팝 그룹 헤드라이너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이다. 올해 이 페스티벌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 헤드라이너로 나서는 주요 뮤지션으로는 래퍼로는 처음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힙합 슈퍼스타 켄드릭 라마, Z세대의 아이콘인 미국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현존 최고 밴드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4인 록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 등이 있다.

헤드라이너는 아니지만 뉴진스도 이번 ‘롤라팔루자’에서 주목받는 라인업이다. 지난해 8월 정식 데뷔 1년 만에 거둔 쾌거다. 특히 뉴진스는 미국에서 프로모션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번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뉴진스는 현지 대중음악 시장 풀뿌리 인기를 반영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입소문만으로 6주 동안 머물며 주류 팝 시장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첫 싱글 ‘OMG’와 수록곡 ‘디토’가 각각 ‘핫 100’에서 최고 순위 74위, 82위(2월 18일 자)를 찍었다.

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세계 13개 도시에서 총 23회 공연하는 두 번째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다. 오는 25~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에서 대장정의 시작을 알린다. 뉴진스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광고를 소화하는 동시에 새 앨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엔믹스, ‘엑스페르고’ 컴백 쇼케이스 성료

그룹 엔믹스가 미니 1집 ‘엑스페르고(expérgo)’ 컴백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JYP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엔믹스(릴리, 해원, 설윤, 배이, 지우, 규진)는 20일 오후 6시 새 앨범 ‘엑스페르고’와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크 디스(Love Me Like This)’를 발매했다. 이를 기념해 같은 날 오후 8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한 컴백 쇼케이스 ‘도킹 스테이션 : 엑스페르고(Docking Station : expérgo)’를 개최했다.

엔믹스는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크 디스’를 비롯해 ‘영, 덤, 스투피드(Young, Dumb, Stupid)’, ‘패스워드(PAXXWORD)’, ‘저스트 디드 잇(Just Did It)’, ‘마이 가쉬(My Gosh)’, ‘홈(HOME)’ 등 신보에 수록된 총 6곡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컴백 소감으로 엔믹스는 “데뷔 첫 미니 앨범인 만큼 여섯 멤버 모두 공들여 준비했는데, 미니 1집을 많이 기다려 주신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좋아해주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웠으니 엔믹스와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활동 정말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앤써(NSWER·팬덤명)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열심히 할 테니 큰 관심 부탁드린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엔믹스의 2023년 첫 컴백작 ‘엑스페르고’는 발매 당일 오후 7시 기준 음반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의 음반 실시간 차트와 가온 차트의 리테일 앨범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했다.

킹덤, 여섯 번째 미니앨범 하라메 공개

그룹 ‘킹덤’이 신보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

21일 GF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킹덤은 이날 0시 SNS에 23일 오후 6시 발매될 여섯 번째 미니앨범 ‘히스토리 오브 킹덤 : 파트 6. 무진(History Of Kingdom : Part Ⅵ. MUJIN)’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게재했다.

‘인트로 : 스티그마(Intro : Stigma)(烙印)’로 시작되는 영상은 타이틀곡 ‘혼(魂; Dystopia)’, ‘바람의 노래’, ‘엘레멘츠(Elements)’, ‘마이 웨이브(MY WAVE)’, ‘러브 이즈 페인(Love is Pain)’, ‘혼(魂; Dystopia)(Inst.)’까지 7곡의 메들리와 함께 재킷 촬영장 비하인드와 개인 콘셉트 사진이 다채롭게 담겨있다.

‘벚꽃의 왕국’의 판타지 대서사시로 트랙 리스트가 유기적으로 이어진 이번 미니6집은 풍요로운 장르 구성과 어둠과 빛의 경계를 오가는 폭넓은 감성 포용으로 귓가를 휘어감는다.

특히 타이틀곡 ‘혼(魂; Dystopia)’의 웅장한 멜로디와 함께 ‘까만 어둠 속에 핀 꽃은 벚차오르는 구원의 검심’과 같은 서정적인 노랫말도 완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타이틀곡은 킹덤의 데뷔 앨범부터 호흡을 맞춘 프로듀서 올라운드(AllRN:D) 로한과 딴크(ROHAN & DDANK)가 프로듀싱했다.

“만난 지 33일 만에”…방은희, 초고속 결혼한 사연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배우 방은희가 초고속으로 두 번이나 결혼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21일 방송한 KBS 2TV 예능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박원숙의 후배 방은희가 선배들을 찾아와 근황을 전했다. 박원숙이 “너 그 사이에 훈장을 2개나 달았어?”라고 이혼에 대해 언급하자, 방은희는 “살다 보니까 저답게, 방은희답게 살려고 (이혼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남편들과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한 것이냐는 물음에 방은희는 “제가 미쳤다. 첫 번째는 33일, 두 번째는 한 달”이라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가수 혜은이가 “한 달은 무지 좋았나보다”라고 하니,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첫 번째 결혼은 일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고 삶이 덧없다고 느꼈을 때라고. 방은희는 “그때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한 자리에 나갔는데 깨니까 신혼여행지였다”라면서 급하게 결혼을 결정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첫 번째 남편이)시나리오 공부를 했고,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 같다”라고 했다.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하나 있었지만 3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가 이혼했다고.

두 번째 남편과는 9년 정도 살고 헤어졌다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 놀이방 다녔을 때 ‘엄마, 나 장난감 가게에서 아빠 좀 사다 줘’라고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 또 5살 이후 남자아이는 여탕에 못 데려간다. ‘얘는 아빠가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했다. 방은희의 사연에 선배들은 울컥하며 안타까워했다.